

1. 다음 <표>는 2017년과 2027년 관광객 수 상위 10개 도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7년과 2027년 관광객 수 상위 10개 도시
(단위: 만 명)

순위	연도	2017		2027	
	구분	도시	관광객 수	도시	관광객 수
1		방콕	1,941	두바이	3,231
2		런던	1,906	뉴욕	3,197
3		파리	1,545	런던	2,523
4		두바이	1,487	서울	2,365
5		싱가포르	1,311	싱가포르	2,148
6		뉴욕	1,270	방콕	1,643
7		서울	1,239	파리	1,466
8		쿠알라룸푸르	1,128	도쿄	1,203
9		도쿄	1,115	바르셀로나	1,144
10		이스탄불	916	타이베이	976

- ※ 2027년 관광객 수는 예상치임.
- ① 2027년 두바이의 관광객 수는 2017년의 2배 이상이다.
 - ② 2027년 이스탄불의 관광객 수는 2017년 대비 감소한다.
 - ③ 2017년 대비 2027년 관광객 수 증가율은 서울이 싱가포르보다 높다.
 - ④ 2027년 쿠알라룸푸르의 관광객 수는 1,000만 명 이하이다.
 - ⑤ 2017년 상위 10개 도시 중, 2017년 대비 2027년 관광객 수 증가폭은 뉴욕이 가장 크다.

2. 다음 <표>는 2019 ~ 2024년 ‘갑’국의 국적취득 업무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9 ~ 2024년 ‘갑’국의 국적취득 업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구분	귀화		국적회복		전체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9		16,852	9,914	3,100	2,443	19,952	12,357
2020		16,529	13,885	2,370	1,764	18,899	15,649
2021		18,091	10,895	3,069	2,742	21,160	13,637
2022		18,079	10,248	4,710	3,043	22,789	13,291
2023		18,736	10,346	5,009	4,203	()	14,549
2024		19,470	11,009	()	3,607	24,9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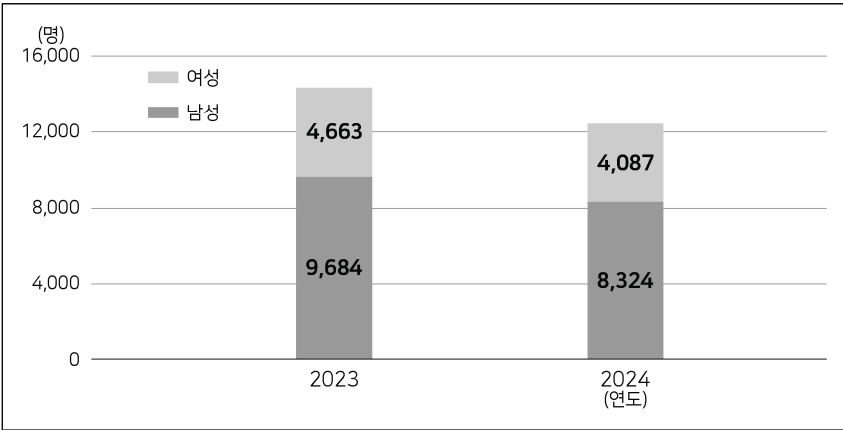
- ※ 국적취득은 귀화와 국적회복으로만 구분됨.
- ① 신청 건수의 연도별 증감방향은 귀화와 국적회복이 같다.
 - ② 국적회복 신청 건수는 2024년이 2019년의 1.5배 이상이다.
 - ③ 2024년은 전년보다 전체 신청 건수도 많고 전체 허가 건수도 많다.
 - ④ 매년 귀화 신청 건수는 국적회복 신청 건수의 3배 이상이다.
 - 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전체 허가 건수의 비율은 2020년이 가장 높다.

3. 다음은 2023년과 2024년 ‘갑’국의 귀농가구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23년과 2024년 연령대별 귀농가구주 현황
(단위: 명, 세)

구분 연도	연령대						평균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2023	1,507	1,843	4,737	5,160	1,100	14,347	55.8
2024	1,171	1,548	3,925	4,739	1,028	12,411	56.4

<그림> 2023년과 2024년 성별 귀농가구주 현황



<보고서>

2024년 귀농가구 수는 12,411가구였다. 지역별로는 D 지역이 4,19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C, E, A, B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2024년 귀농가구주는 남성이 67.1 %, 여성이 32.9 %였으며, 남성의 비중은 전년보다 0.4 %p 이상 감소하였다. 2024년 귀농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6.4세로 전년의 55.8세보다 0.6세 높았다. 2024년 귀농가구주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31.6 %, 60대가 38.2 %로, 50대와 60대가 전체의 69.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6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귀농가구 중 1인 가구는 75.2 %, 2인 가구는 17.9 %를 차지하였다.

<보 기>

ㄱ. 2023년과 2024년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 (단위: 명)

연도	2023	2024
평균 가구원 수	1.38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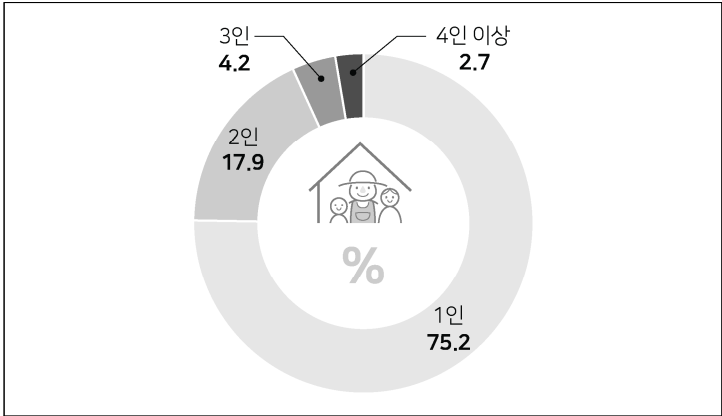
ㄴ. 2024년 지역별 귀농가구 수 (단위: 가구)

지역	귀농가구 수
A	1,286
B	929
C	3,424
D	4,190
E	2,582
전체	12,411

ㄷ. 2023년 귀농가구주의 연령대별 구성비 (단위: %)

연령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구성비	10.5	12.8	33.0	36.0	7.7	100

ㄹ. 2024년 귀농가구의 가구원 수별 구성비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4. 다음 <표>는 ‘갑’국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별 조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별 조치 결과
(단위: 건)

국회의원 선거 구분 위반 유형	제19대	제20대			
	조치 건수	조치 건수	고발	수사의뢰	경고
기부행위	311	202	74	19	109
허위사실공표	56	229	48	15	166
비방·흑색선전	77	36	5	3	28
인쇄물 관련	341	200	16	4	180
시설물 관련	141	81	1	2	78
여론조사 관련	29	107	16	5	86
유사기관·사조직	19	12	8	1	3
문자메시지 이용	184	75	7	0	68
집회·모임 이용	437	428	34	6	388
전체	1,595	1,370	209	55	1,106

<보 기>

- ㄱ. 제19대 대비 제20대는 전체 조치 건수가 10 % 이상 감소하였다.
- ㄴ. 제19대에 비해 제20대는 조치 건수가 모든 위반 유형에서 각각 감소하였다.
- ㄷ. 제20대의 ‘기부행위’ 위반 유형에서 조치 건수는 ‘경고’가 ‘고발’의 1.5배 이하이다.
- ㄹ. 제20대의 각 위반 유형에서 조치 건수 중 ‘수사의뢰’의 비중이 가장 작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5. 다음 <표>는 ‘갑’국의 의과대학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평가총점이 가장 높은 의과대학은?

<표 1>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산정 기준

평가항목	1점	2점	3점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4명 이상	2명 이상 4명 미만	2명 미만
차입금	2,0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미만
교육용 시신 수 평균	30구 미만	30구 이상 50구 미만	50구 이상

- ※ 1) 평가총점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합임.
-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와 차입금은 2024년 자료로 평가하고, 교육용 시신 수 평균은 201 ~ 2024년 교육용 시신 수의 평균값으로 평가함.

<표 2> 2024년 의과대학별 전임교원 수, 학생 수 및 차입금
(단위: 명, 억 원)

의과대학	구분 전임교원		학생	차입금
	정년교원	비정년교원		
A	387	59	874	756
B	134	55	459	2,700
C	155	182	715	1,637
D	120	23	277	1,020
E	156	101	682	3,469

<표 3> 2021 ~ 2024년 의과대학별 교육용 시신 수
(단위: 구)

연도	2021	2022	2023	2024
의과대학				
A	46	53	52	37
B	15	23	35	41
C	36	39	39	28
D	34	37	38	50
E	76	80	74	74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6. 다음 <표>는 2024년 ‘갭’기관 사용 토지의 지역별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가) ~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4년 ‘갭’기관 사용 토지의 지역별 현황
(단위: 필, 만 m², 억 원)

토지		사유지	공유지	전체
지역	구분			
수도권	필지	7,102	790	7,892
	면적	2,269	1,225	3,494
	가격	6,563	2,254	8,817
강원	필지	2,051	621	2,672
	면적	706	402	1,108
	가격	249	1,185	1,434
충청	필지	468	162	630
	면적	64	148	212
	가격	61	127	188
호남	필지	778	110	888
	면적	120	36	156
	가격	55	23	78
영남	필지	1,125	649	1,774
	면적	215	72	287
	가격	681	109	790

<보고서>

2024년 ‘갭’기관 사용 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갭’기관 사용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로 구분되며, 지역은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으로만 구분된다. 지역별 전체 필지는 수도권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강원, 영남, 호남, 충청 순이다. 각 지역에서 사유지 필지는 공유지 필지보다 많고, 강원과 (가) 각각은 사유지 가격이 공유지 가격보다 낮다. 영남의 전체 필지는 수도권 전체 필지의 25 %보다 적지만, 공유지 필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서 영남이 (나) 로 많다. 사유지 면적은 수도권이 가장 크며, 수도권의 공유지 면적은 나머지 4개 지역의 공유지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보다 (다) .

- | | | |
|------|------|-----|
| (가) | (나) | (다) |
| ① 충청 | 첫 번째 | 작다 |
| ② 충청 | 첫 번째 | 크다 |
| ③ 충청 | 두 번째 | 크다 |
| ④ 호남 | 첫 번째 | 작다 |
| ⑤ 호남 | 두 번째 | 크다 |

7. 다음은 2014년과 2024년 항만 A ~ E의 주요지표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 ~ E 중 ‘갭’항만은?

<표> 2014년과 2024년 항만 A ~ E의 주요지표
(단위: 백만 TEU, 만 척)

항만	연도	전체 물동량		환적 물동량		출입항 선박 수	
		2014	2024	2014	2024	2014	2024
A		15.6	33.5	5.5	15.1	1.5	3.6
B		29.5	25.3	14.3	13.2	2.1	1.9
C		38.5	54.3	17.7	50.2	2.8	4.5
D		34.4	37.5	30.3	12.3	1.8	3.5
E		8.5	17.7	2.1	4.8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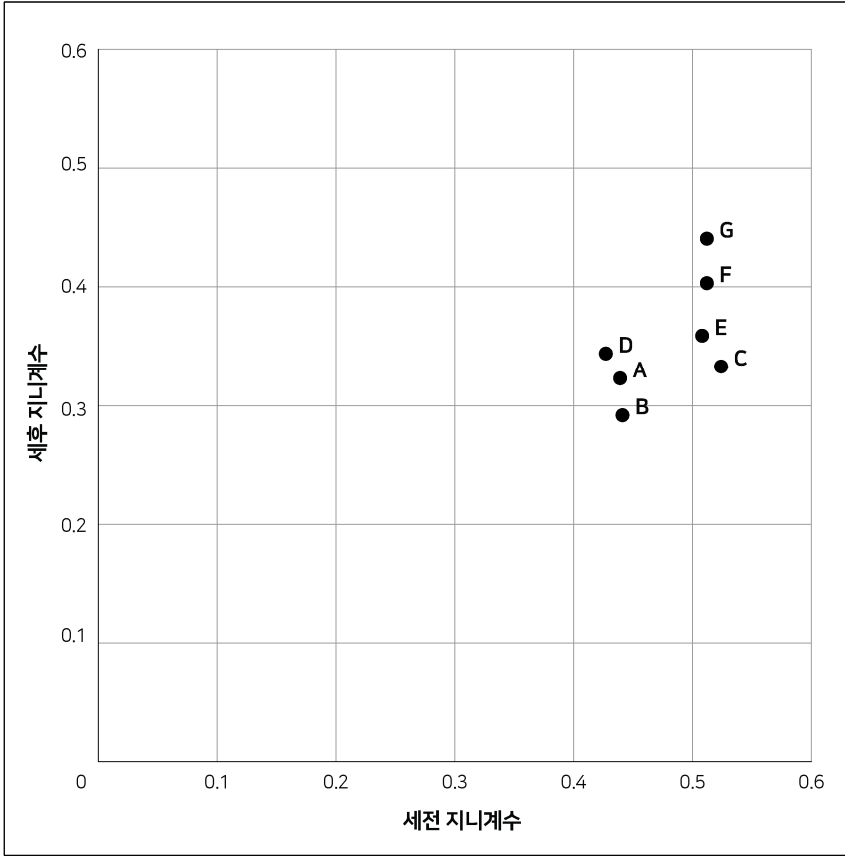
<보고서>

해운항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갭’항만의 주요지표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4년보다 2024년 전체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항 선박 수도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14년의 150 % 이상이 되었다. ‘갭’항만의 전체 물동량 중 환적 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4년이 2014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갭’항만의 출입항 선박 수 대비 전체 물동량은 1척당 1,000 TEU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항만 기반 시설 확충 및 설비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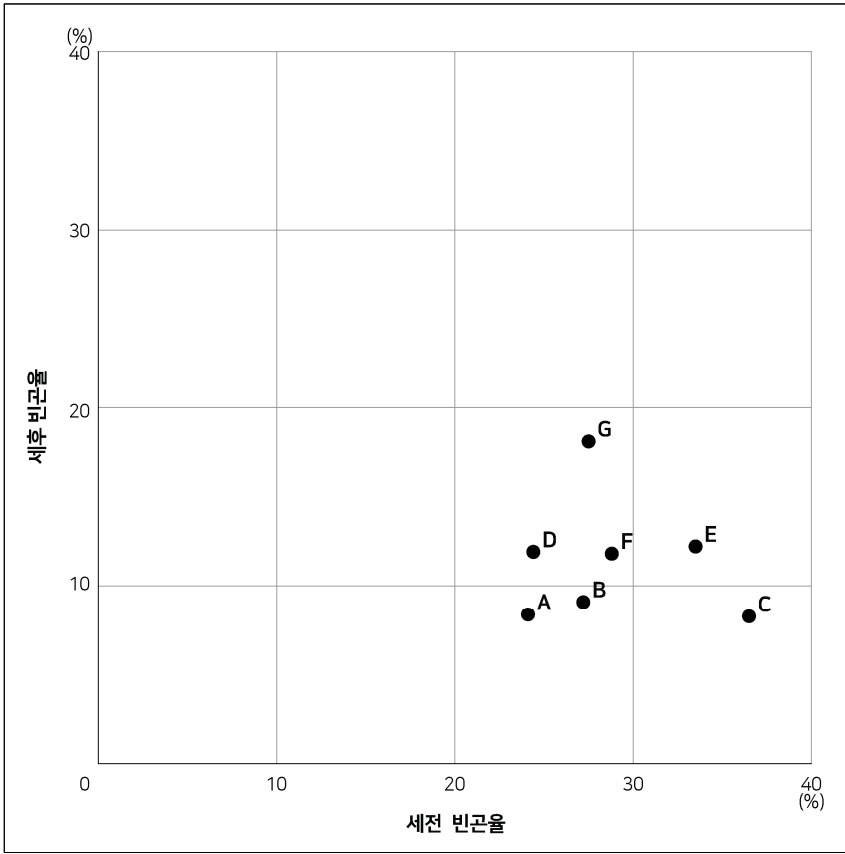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8. 다음은 2024년 국가 A ~ G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2024년 국가 A ~ G의 세전 및 세후 지니계수



<그림 2> 2024년 국가 A ~ G의 세전 및 세후 빈곤율



<보 기>

- ㄱ. 세후 지니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세후 빈곤율도 가장 높다.
- ㄴ.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B이다.
- ㄷ. 세전 빈곤율 대비 세후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C이다.
- ㄹ. 세전 지니계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세후 지니계수도 높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9. 다음 <보고서>는 2024년 ‘갑’국 국가기간·전략산업직군의 직종별 시간당 훈련비 지원단가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는?

<보고서>

2024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군의 직종별 시간당 훈련비 지원단가를 조사한 결과, 지원단가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원단가가 가장 낮은 직종은 의료기술로 5,000원 이하였고,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직종은 광산조사·탐사로 1만 원 이하였다. 의료기술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두 직종 간 지원단가 차이는 3,000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의료기술 지원단가는 광산조사·탐사 지원단가의 50% 미만으로 지원단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단위: 원/시간)

구분 지원단가 순위	하위		상위	
	직종	지원단가	직종	지원단가
1	의료기술	4,520	광산조사·탐사	9,920
2	디자인	6,620	식품가공	9,830
3	보건	6,810	방송플랫폼기술	9,610

② (단위: 원/시간)

구분 지원단가 순위	하위		상위	
	직종	지원단가	직종	지원단가
1	의료기술	5,520	광산조사·탐사	9,920
2	디자인	6,930	식품가공	9,830
3	보건	7,810	방송플랫폼기술	9,610

③ (단위: 원/시간)

구분 지원단가 순위	하위		상위	
	직종	지원단가	직종	지원단가
1	의료기술	4,520	광산조사·탐사	9,920
2	디자인	6,930	식품가공	9,830
3	보건	7,810	방송플랫폼기술	9,610

④ (단위: 원/시간)

구분 지원단가 순위	하위		상위	
	직종	지원단가	직종	지원단가
1	의료기술	4,980	광산조사·탐사	9,920
2	디자인	6,930	식품가공	9,830
3	보건	7,810	방송플랫폼기술	9,610

⑤ (단위: 원/시간)

구분 지원단가 순위	하위		상위	
	직종	지원단가	직종	지원단가
1	의료기술	4,520	광산조사·탐사	10,920
2	디자인	7,620	식품가공	9,830
3	보건	7,810	방송플랫폼기술	9,610

10. 다음 <보고서>는 2020 ~ 2024년 공공조달 시장에서 여성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고서>

공공조달 시장에서 여성기업 수는 2024년에 공공조달 전체 기업 수의 25 % 이상이었고, 2020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5 % 이상 증가하였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여성기업의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 6.7조 원 이상을 달성했으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공공조달 전체 기업 계약금액의 10 %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4년 공공조달 시장에서 여성기업의 계약금액을 발주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준정부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공기업,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순이었다.

한편, 사회적약자기업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으로만 구성되는데, 사회적약자기업의 공공조달 전체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계약금액은 매년 사회적약자기업 공공조달 전체 계약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 기>

ㄱ. 2024년 공공조달 시장에서 여성기업 계약금액의 발주기관별 비중

발주기관	비중 (%)
지방자치단체	51.0
중앙정부	28.0
공공기관	16.0
기타	5.0
준정부기관	7.0
기타공공기관	3.0
지방공기업	1.0

ㄴ. 연도별 사회적약자기업 공공조달 계약금액

연도	장애인기업 (억 원)	여성기업 (억 원)	사회적기업 (억 원)
2020	10,213	48,967	4,558
2021	11,610	53,494	5,166
2022	11,512	57,896	5,410
2023	12,243	63,561	5,864
2024	12,331	67,332	6,201

ㄷ. 연도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전체 기업 수 및 여성기업 수

연도	전체 (개)	여성기업 (개)
2020	471,100	108,105
2021	502,710	118,908
2022	536,305	131,203
2023	572,118	144,924
2024	602,681	156,406

ㄹ. 연도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전체 기업 및 여성기업 계약금액 (단위: 억 원)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480,545	513,566	572,121	595,782	707,205
여성기업	48,967	53,494	57,896	63,561	67,332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1. 다음은 2020 ~ 2024년 ‘갑’국 정부의 전체 R&D 투자액과 부처별 보건의료 R&D 투자액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가) ~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0 ~ 2024년 ‘갑’국 정부의 전체 R&D 투자액과 부처별 보건의료 R&D 투자액 (단위: 억 원)

구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R&D	168,777	177,428	189,231	190,942	194,615
보건의료 R&D	9,319	11,315	11,050	11,368	11,317
과기정통부	2,548	2,711	3,335	3,577	4,111
농식품부	487	462	479	590	682
산업부	1,887	3,089	1,583	1,929	1,491
복지부	3,830	4,410	4,924	4,608	4,531
환경부	82	123	134	138	149
식약처	218	272	313	335	353
농진청	267	248	282	191	0

※ 보건의료 R&D 투자 부처는 제시된 7개뿐임.

<보고서>

2020 ~ 2024년 ‘갑’국 정부의 보건의료 R&D 투자액을 보면, 과기정통부, (가), 식약처의 투자액이 각각 매년 증가하였다. 2024년 보건의료 R&D 투자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나)였다. 전체 R&D 투자액에서 보건의료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5.5 % 이상이였으며, 특히 (다)년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가) | (나) | (다) |
|--------|-------|------|
| ① 농식품부 | 과기정통부 | 2023 |
| ② 농식품부 | 복지부 | 2021 |
| ③ 환경부 | 과기정통부 | 2021 |
| ④ 환경부 | 농식품부 | 2021 |
| ⑤ 환경부 | 농식품부 | 2023 |

12. 다음 <표>는 2022 ~ 2024년 A 지역 11개 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2 ~ 2024년 신입생 충원율
(단위: %)

연도\구분	평균값	최솟값	중앙값	최댓값
2022	99.5	98.3	99.6	100.0
2023	99.4	95.2	99.8	100.0
2024	92.9	68.5	98.7	99.9

<표 2> 2022 ~ 2024년 재학생 충원율
(단위: %)

연도\구분	평균값	최솟값	중앙값	최댓값
2022	95.7	79.7	95.2	104.8
2023	97.8	89.5	97.0	103.0
2024	94.7	82.1	96.2	101.9

<표 3> 2022 ~ 2024년 졸업생 취업률
(단위: %)

연도\구분	평균값	최솟값	중앙값	최댓값
2022	63.6	49.8	64.3	75.1
2023	64.2	53.8	64.2	78.0
2024	62.2	51.1	63.1	68.4

※ 1) 중앙값은 모든 관측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값임. 예를 들어 5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50, 51, 52, 53, 56이라면, 중앙값은 52임.
2) 졸업생 취업률이 같은 대학은 없음.

<보 기>

- ㄱ. 신입생 충원율은 최솟값이 가장 작은 해에 중앙값도 가장 작다.
- ㄴ. 신입생 충원율의 평균값이 가장 큰 해에 재학생 충원율의 평균값도 가장 크다.
- ㄷ. 재학생 충원율의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는 매년 증가한다.
- ㄹ. 2022년 졸업생 취업률은 다섯 번째로 높은 대학의 값이 평균값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3. 다음 <표>는 1980년과 2024년 A 가구의 연간 가계소득 및 가계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980년과 2024년 연간 가계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천 원)

구분\연도	1980	2024
가계소득	9,645	()
가계지출	7,564	33,353
소비지출	7,168	24,795
식료품지출	3,871	6,552
외식지출	()	3,316
가정식지출	3,705	3,236
식료품외지출	3,297	18,243
비소비지출	396	8,558

<보 기>

- ㄱ. 가계지출은 2024년이 1980년의 4배 이상이다.
- ㄴ. 1980년과 2024년 각각 가계지출 중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소비지출 중 식료품외지출의 비중보다 크다.
- ㄷ. 1980년 식료품지출 중 외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 % 이상이다.
- ㄹ. 2024년 가계소득이 1980년의 4배일 때, 2024년 가계소득 대비 식료품지출 비율은 1980년보다 낮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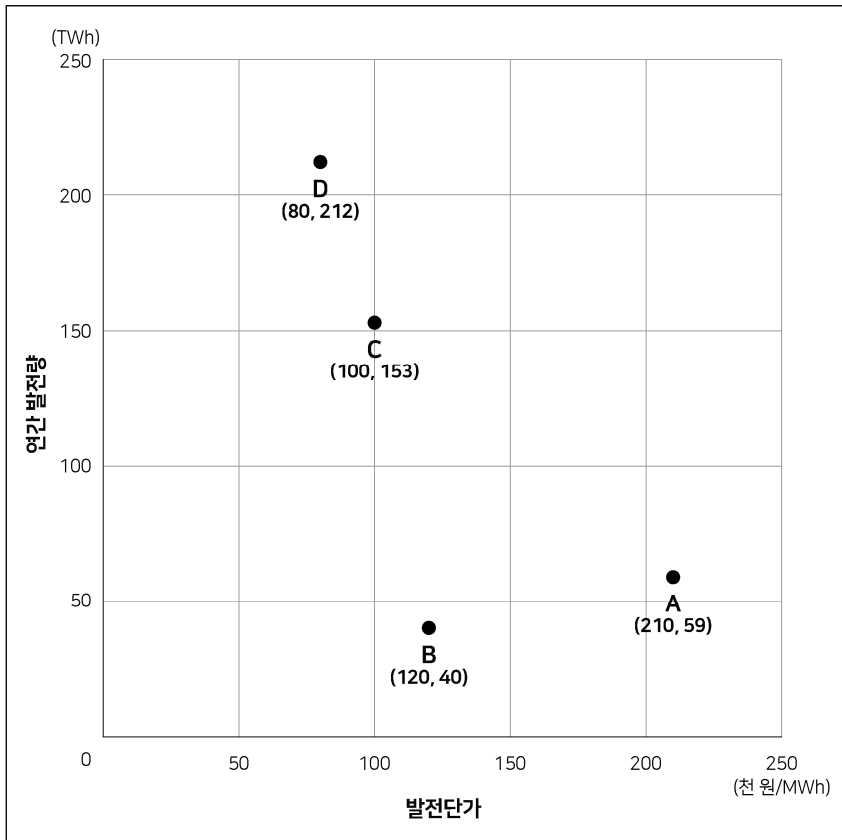
[14 ~ 15] 다음은 2014년 ‘갑’국의 발전원 A ~ D의 전력 생산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2014년 발전원 A ~ D의 발전단가
(단위: 천 원/MWh)

구분 \ 발전원	A	B	C	D
발전단가	210	120	100	80
시설단가	200	100	50	60
운영단가	10	20	50	20

※ 발전단가 = 시설단가 + 운영단가

〈그림〉 2014년 발전원별 발전단가와 연간 발전량



※ () 안의 값은 순서대로 발전단가(천 원/MWh), 연간 발전량(TWh)임.

- <정 보> -

- 연간 발전비용 = 발전단가 × 연간 발전량
- 연간 운영비용 = 운영단가 × 연간 발전량
- 평균 발전단가 = $\frac{\text{발전원 A} \sim \text{D의 발전단가 합}}{4}$
- 발전원별 보조금 = 해당 발전원의 발전단가 - 평균 발전단가
- 보조금은 발전단가가 평균 발전단가보다 높은 발전원 사업자에게만 지급함.

14. 위 자료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원일수록 연간 발전량이 많다.
- ㄴ. 발전원별 연간 발전비용은 D가 가장 크다.
- ㄷ. 발전단가 중 운영단가의 비중이 작은 발전원일수록 연간 발전량이 많다.
- ㄹ. 발전원별 연간 운영비용은 C가 가장 크다.

- ① \neg , \perp
 ② \neg , \top
 ③ \perp , \top
 ④ \perp , \bot
 ⑤ \top , \bot

15. 다음은 2014년 대비 2024년 ‘갑’국 전력 생산 시장 변화에 관한 <보고서>이다. 위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고서>의 (나)와 (라)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고서>

2014년 ‘갯’국의 발전원 A ~ D 중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원은 (가)였다. ‘갯’국은 발전원 다변화를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였고, 2014년에 발전원 (가) 사업자들에 대해 발전량 1 MWh당 (나)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유치를 독려했다.

이후, 2014년에 비해 2024년 ‘갑’국의 전력 생산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발전원 A ~ D의 2024년 발전단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발전원 A는 기술발전으로 시설단가가 90 % 줄었으나, 운영단가는 2014년과 같았다. 발전원 B의 경우 노후 발전소를 대체한 신규 발전소 건설로 시설단가가 40 % 늘었지만, 운영단가는 2014년과 같았다. 발전원 C와 D는 기존 발전소의 내구연한 연장으로 시설단가가 각각 50 %씩 줄었으나,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으로 운영단가는 각각 25천 원/MWh, 10천 원/MWh씩 올랐다.

결과적으로 발전원 A ~ D 중, (가)의 발전단가는 2014년에 가장 높았으나, 2024년에는 가장 낮았다. 한편 2024년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원은 (다)가 되었다. 2024년에 발전원 (가)와 (다)의 발전단가 차이는 (라)천 원 /MWh이었다.

(나) (라)

- | | | |
|---|------|-----|
| ① | 82.5 | 30 |
| ② | 82.5 | 60 |
| ③ | 82.5 | 130 |
| ④ | 90.0 | 60 |
| ⑤ | 90.0 | 130 |

16. 다음 <표>는 기관 A ~ D의 신입직원 선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기관 A ~ D의 신입직원 응시자 및 합격자
(단위: 명)

기관		A		B		C		D	
최종학력		학사	석사	학사	석사	학사	석사	학사	석사
구분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응시자		53	67	106	59	65	75	187	82
합격자		14	37	32	27	8	33	42	29

※ ‘학사 이하’(‘석사 이상’) 합격률(%) = $\frac{\text{‘학사 이하’(‘석사 이상’) 합격자}}{\text{‘학사 이하’(‘석사 이상’) 응시자}} \times 100$

——<보 기>——

ㄱ. ‘석사 이상’ 합격자가 ‘학사 이하’ 합격자보다 많은 기관은 A와 C이다.

ㄴ. ‘학사 이하’ 합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A이다.

ㄷ. ‘석사 이상’ 합격률은 기관 B가 기관 D보다 7%p 이상 높다.

ㄹ. 기관별 응시자 중 ‘석사 이상’이 30 % 이상인 기관은 3개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7. 다음 <표>는 2024년 ‘갑’시 A ~ F 지역의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A ~ F 지역의 교통사고 건수 및 비용
(단위: 명, 대, 건, 만 원)

지역 \ 구분	인구	자동차 수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비용
A	9,509	3,177	217	53,242
B	13,565	6,204	327	86,851
C	2,948	1,675	64	16,305
D	3,350	1,464	72	20,053
E	2,385	1,211	68	17,824
F	1,121	581	27	7,376
전체	32,878	14,312	775	201,651

※ ‘갑’시는 A ~ F 지역으로만 구분됨.

- ①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통사고 비용이 크다.
- ② 자동차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교통사고 건수가 많다.
- ③ 인구 1명당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B이다.
- ④ 자동차 1대당 교통사고 비용이 가장 작은 지역은 F이다.
- ⑤ 교통사고 1건당 교통사고 비용은 C 지역이 ‘갑’시 전체보다 작다.

18. 다음 <표>는 2023년과 2024년 ‘갑’국의 세목별 수입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3년과 2024년 세목별 수입
(단위: 조 원)

세목 \ 연도 구분	2023	2024	
	실적	본예산	실적
소득세	115.8	125.8	117.4
법인세	80.4	77.7	62.5
증여세	14.6	14.7	15.3
부가가치세	73.8	81.4	82.2
개별소비세	8.8	10.2	8.7
증권거래세	6.1	5.4	4.8
교통세	10.8	15.3	11.4
관세	7.3	8.9	7.0
종합부동산세	4.6	4.1	4.2
전체	322.2	343.5	313.5

※ 1) 세목은 제시된 9개뿐임.

2) 연도별 오차율(%) = $\frac{|\text{해당 연도 실적} - \text{해당 연도 본예산}|}{\text{해당 연도 실적}} \times 100$

——<보 기>——

ㄱ. 2023년에 비해 2024년 실적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이다.

ㄴ. 2023년 실적과 2024년 본예산의 차이가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이다.

ㄷ. 2024년 오차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교통세’이다.

ㄹ. 실적이 큰 세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2023년과 2024년의 순서가 같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9. 다음 <표>는 2020 ~ 2024년 ‘갑’국의 선박 통제 점검결과별 선박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기>의 자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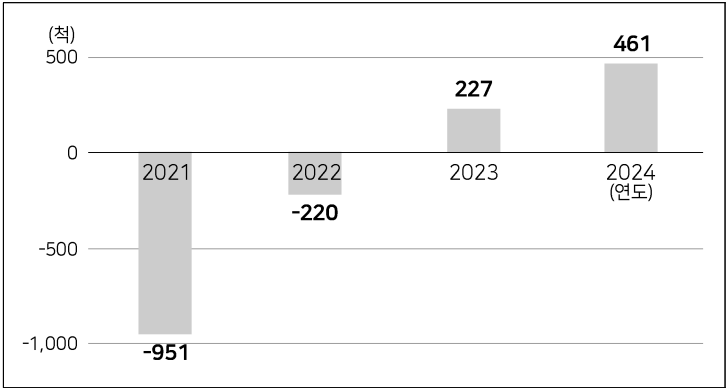
<표> 2020 ~ 2024년 선박 통제 점검결과별 선박 수
(단위: 척)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점검결과						
통과	2,994	2,043	1,823	2,050	2,511	11,421
시정조치	2,323	1,580	1,413	1,557	1,995	8,868
출항정지	59	63	49	53	63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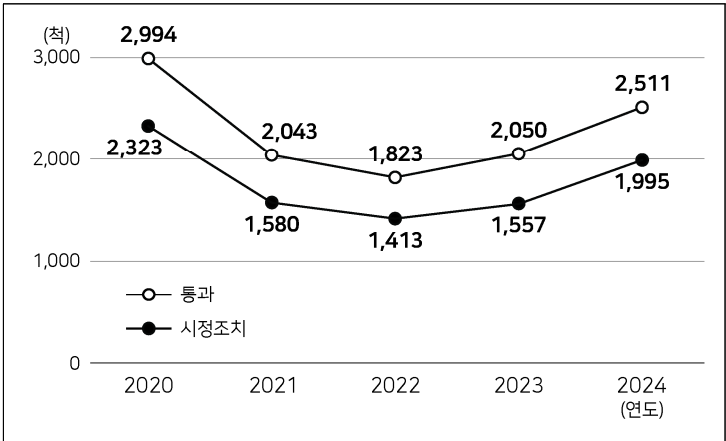
※ 점검결과는 ‘통과’, ‘시정조치’, ‘출항정지’ 중 1개로만 구분됨.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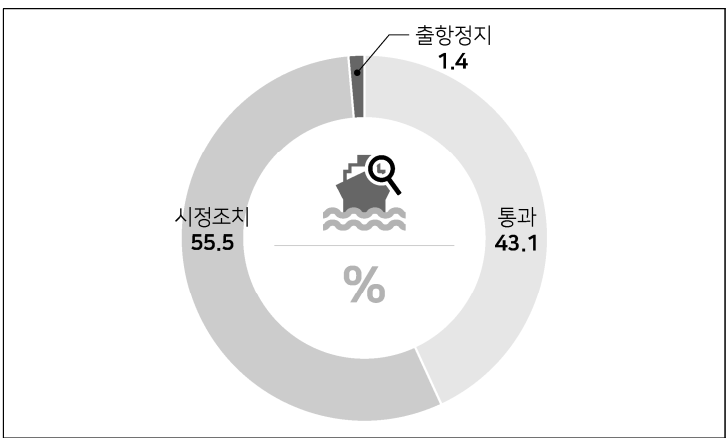
ㄱ. ‘통과’ 선박 수의 전년 대비 증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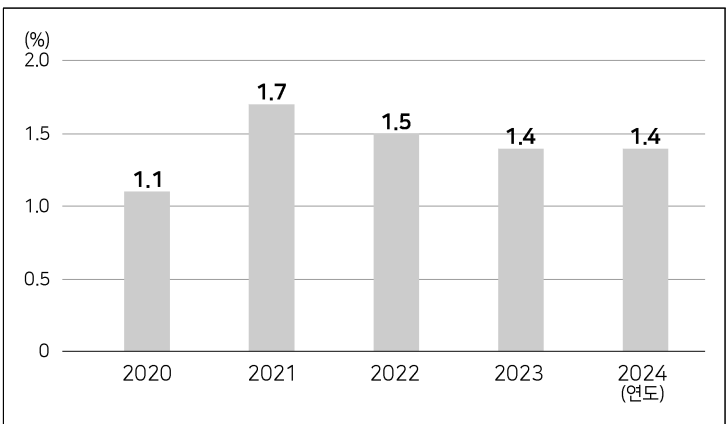
ㄴ. 연도별 ‘통과’ 선박 수 및 ‘시정조치’ 선박 수



ㄷ. 전체 점검결과별 구성비



ㄹ. 연도별 ‘통과’ 선박 수 대비 ‘출항정지’ 선박 수 비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 다음 <표>는 2023년과 2024년 ‘갑’회사 동호회 A ~ E의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3년과 2024년 ‘갑’회사 동호회별 운영 현황
(단위: 명, 회, 천 원)

동호회	연도	2023			2024		
	구분	회원	활동 횟수	지원금	회원	활동 횟수	지원금
A		21	10	550	31	14	650
B		13	7	270	17	8	340
C		8	23	250	15	20	200
D		34	15	460	30	19	520
E		48	14	500	37	17	600
전체		124	69	2,030	130	78	2,310

※ 회원은 동호회 A ~ E 중 1개에만 속함.

- ① 활동 횟수 1회당 지원금이 가장 많은 동호회는 2023년과 2024년이 같다.
- ② 2023년은 동호회 D의 회원 수가 동호회 전체 회원 수의 20 % 이상이다.
- ③ 2024년 지원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호회는 2024년 회원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④ 2024년 활동 횟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동호회에 2024년 해당 동호회 회원 1명당 3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면, 추가되는 지원금은 총 345만 원이다.
- ⑤ 2024년 동호회 전체 회원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21. 다음 <표>는 2021 ~ 2023년 국제회의 개최 국가 및 도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2021 ~ 2023년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단위: 건)

순위	국가	연도	2023	2022	2021
1	벨기에		709	648	385
2	미국		633	583	512
3	일본		493	399	408
4	한국		423	326	473
5	스페인		395	462	174
6	포르투갈		375	464	150
7	오스트리아		367	317	228
8	영국		322	329	232
9	프랑스		314	348	273
10	이탈리아		312	265	176
11					

<표 2> 2021 ~ 2023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단위: 건)

순위	도시	연도	2023	2022	2021
1	브뤼셀(벨기에)		620	570	319
2	빈(오스트리아)		298	255	195
3	리스본(포르투갈)		294	336	94
4	도쿄(일본)		226	201	258
5	서울(한국)		200	136	265
6	런던(영국)		139	148	101
7	파리(프랑스)		124	130	153
8	마드리드(스페인)		116	154	37
9	바르셀로나(스페인)		115	147	67
10	두바이(아랍에미리트연합)		114	73	67
11					

- ※ 1) 순위는 2023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임.
2) () 안은 해당 도시가 속한 국가임.
- ① 일본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매년 증가한다.
② 매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브뤼셀이다.
③ 2023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 상위 10개 도시 중, 2023년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도시는 4개이다.
④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 중 서울의 비중은 매년 50 % 미만이다.
⑤ 2023년 국제회의 개최 도시 중 스페인에 속한 도시는 4개 이상이다.

22. 다음 <표>는 2020 ~ 2024년 ‘갑’군의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20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단위: 명)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인인구		6,521	6,771	6,987	7,346	7,501
기초연금 수급자		4,353	4,495	4,581	4,869	5,027
전액 수급자		3,979	4,154	()	4,413	4,532
감액 수급자		374	()	420	456	495

- ※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 $\frac{\text{기초연금 수급자}}{\text{노인인구}} \times 100$
- ① 2021년 감액 수급자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②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70 % 이하이다.
③ 2022년 전액 수급자는 감액 수급자의 10배 이상이다.
④ 2024년 노인인구는 2020년 대비 20 % 이상 증가하였다.
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전액 수급자 비중은 2024년이 2020년보다 크다.

23. 다음 <표>는 ‘갑’회사 제품 A, B, C의 판매량과 반품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제품 A, B, C의 판매량과 반품량
(단위: 개)

구분	제품	A	B	C	전체
판매량		3,500	4,500	5,500	13,500
반품량		70	150	220	440

- ※ 1) 반품률(%) = $\frac{\text{반품량}}{\text{판매량}} \times 100$
2) 순판매율(%) = $\frac{\text{판매량} - \text{반품량}}{\text{판매량}} \times 100$
- ① 반품률이 가장 높은 제품은 B이다.
② 판매량이 가장 적은 제품의 반품량은 전체 반품량의 15 % 이하이다.
③ 제품별 반품량만 50 %씩 증가한다면, 전체 순판매율은 95 % 이하가 된다.
④ 제품별 반품량만 100개씩 증가한다면, 전체 반품률은 5 % 이상이 된다.
⑤ 제품별 판매량만 1,000개씩 증가한다면, 전체 순판매율은 1%p 이상 증가한다.

24. 다음 <표>는 2014년과 2024년 가구 A ~ D의 가계소득 및 의료비 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4년과 2024년 가구 A ~ D의 가계소득 및 의료비지출
(단위: 만 원, %, 명)

항목 연도 가구	가계소득			의료비지출			가구원
	2014	2024	전년 대비 증가율	2014	2024	전년 대비 증가율	
A	6,500	7,500	5.5	400	800	-4.0	4
B	7,000	8,900	5.0	700	900	10.0	5
C	3,500	4,500	7.0	300	400	-6.0	1
D	4,500	6,000	9.0	350	450	5.0	2

※ 2014 ~ 2024년 가구 A ~ D 각각의 가구원은 변동 없음.

<보 기>

- ㄱ. 2023년 의료비지출은 가구 B가 가장 많았다.
- ㄴ. 가구원 1명당 가계소득이 2014년에 비해 2024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구는 C이다.
- ㄷ.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가구는 2014년과 2024년이 같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5. 다음 <표>는 2024년 A 구의 소득구간별 청년인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4년 A 구의 소득구간별 청년인구
(단위: 명)

구분 \ 소득구간		전체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450만 원 미만	45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성별	남성	320	1,045	629	335	124	2,453
	여성	398	1,033	460	297	130	2,318
연령	19 ~ 22세	424	518	154	48	7	1,151
	23 ~ 26세	201	654	212	79	28	1,174
	27 ~ 30세	69	507	314	239	80	1,209
	31 ~ 34세	24	399	409	266	139	1,237
주거 형태	자가	50	169	213	223	134	789
	전세	99	913	385	215	54	1,666
	월세	549	952	432	153	42	2,128
	기타	20	44	59	41	24	188

※ 청년의 연령은 19 ~ 34세임.

<보 기>

- ㄱ. 청년 여성 중 소득이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청년 여성의 비중은 청년 남성 중 소득이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청년 남성의 비중보다 작다.
- ㄴ.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고 연령이 23 ~ 26세인 청년인구 1명당 소득은 100만 원 이상이다.
- ㄷ. 연령이 27세 이상이거나 주거형태가 전세인 청년인구는 2,450명 이상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